

# EDCF ISSUE PAPER

2015년 12월  
Vol.4 No.8

## 21세기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 :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와 개발목표(SDGs)

임소진 선임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경제총괄부 정책연구팀)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최초의 글로벌 공동의 개발목표였던 새천년개발목표(MDGs)는 21세기의 첫 15년을 장식하는 인간개발과 사회발전 중심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MDGs를 대체하는 새로운 개발목표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은 지난 15년간의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로벌 당면과제를 반영하여 사회개발 뿐 아니라 경제개발과 환경 지속가능성, 그리고 평화와 안보를 모두 아우르는 포괄적 형태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본 이슈페이퍼는 최근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2015년 9월에 채택된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와 SDGs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본 이슈페이퍼는 국제사회의 SDGs 달성에 대한 해결과제도 함께 논의하였다.

### 목 차

1. 21세기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2.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
3.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4. 국제개발협력의 향후과제

## 1. 21세기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 1.1. 새천년개발목표(MDGs)와 인간·사회개발

1990년대 말, 21세기의 시작을 앞두고 선진공여국은 공여국과 개도국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공동의 글로벌 목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OECD DAC<sup>1)</sup>는 1996년 '21세기 개발협력전략(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을 발표하여 21세기 공여국과 개도국 모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공동의 개발목표를 제안하였다. 21세기 개발협력전략은 개발의 사회·경제·정치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공동의 로드맵을 최초로 제시하고,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공여국 간 글로벌 플랫폼을 처음으로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 변화에 큰 기여를 하였다. OECD DAC은 공동의 개발목표가 모든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목표들은 개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침(guidepost)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OECD, 1996).

이렇게 제안된 OECD DAC의 글로벌 공동의 개발목표는 2001년 세계은행, IMF<sup>2)</sup>, UN, OECD와 일부 선진공여국이 모인 회의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sup>3)</sup>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OECD DAC의 7개 개발목표에 '글로벌 파트너십'의 목표가 추가되어 총 8개의 MDGs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MDGs 주요 목표들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회발전' 또는 '인간개발' 중심의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을 정립하게 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경제발전 중심의 개발협력 활동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세계화가 본격화 되면서 사회발전과 인간개발의 중요성이 조명받기 시작하고, 그 결과 MDGs의 주요 목표들은 사회·인간개발에 중점을 두어 개발되었다 (임소진, 2012).

이와 함께 MDGs의 또 다른 특징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목표라는 것이다. 나아가 MDGs 수립은 정해진 기간 내 제시된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하는 '결과중심'의 패러다임이 국제개발협력에 자리잡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MDGs 수립 이후 공여국은 MDGs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원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정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한 원조 규모를 증가시켰다. 또한 개도국은 MDGs 목표와 연계된 국가정책을 우선사항으로 수립하기도 하였다 (임소진, 2012).

### 1.2.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포괄적 개발

이렇게 수립된 MDGs는 21세기를 시작하는 첫 15년을 이끌어 왔으며, 최근 2015년까지를 목표로 했던 MDGs를 계승하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가 수립되면서 국제사회의 사회개발 중심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사회개발 뿐 아니라 경제개발과 환경지속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변화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은 평화와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한 개발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거버넌스와 효과적 제도의 중요성도 함께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롭게 수립된 개발목표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로 명명되었다. 국제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기존의 '공여국-개도국 파트너십'을 '다자이해관계자(multilateral)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는 평화와 안보를 바탕으로 사회·경제·환경개발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여국과 개도국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기업, 자선단체(philanthropist), 의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이슈페이퍼는 최근 변화된 국제개발협력 패러다임이 반영된 SDG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SDGs 수립에 따른 국제사회 및 한국의 개발협력의 해결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1)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3) MDGs와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흔재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바, 새천년선언은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선언이고 MDGs는 이후 2001년 합의된 글로벌 목표라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 2.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sup>4)</sup>

2001년 수립된 MDGs는 국제회의를 통해 채택되는 공식 절차가 부재하였다. 이는 곧 일부 국제기구와 선진공여국의 주도로 MDGs가 수립되었다는 절차상의 한계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16년부터 이행이 시작되는 SDGs의 최종 수립은 2015년 9월 UN 총회(General Assembly)의 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과정을 밟게 되었다. 그 결과 SDGs는 UN 총회 개발정상회의 결과문서인 '변화하는 세계 :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 포함되어 채택되었다. 2015 개발정상회의의 결과 문서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제사회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변화(transform)'를 인정하고 이를 새롭게 시작될 15년의 역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2030이 제시된 이유는 SDGs는 2016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2.1. 서문(Preamble)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의 서문은 MDGs의 인간중심(People)의 패러다임에 더하여 새롭게 추가된 환경(Planet), 경제(Prosperity), 평화(Peace)의 측면과 확대된 파트너십(Partnership)을 5대 핵심요소(5 Ps)로 제시하고 있다 (표 1 참고).

<표 1>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의 5대 핵심요소 (5 Ps)

핵심요소	주요내용
인간 (Peop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형태와 차원의 빈곤과 기아 종식</li> <li>·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서의 잠재력 실현 보장</li> </ul>
환경 (Plane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관리,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같은 환경 악화로부터의 보호를 통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수요를 지원</li> </ul>
번영 (Prospe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인간의 번영과 성취하는 삶 보장</li> <li>· 자연과의 조화와 함께하는 경제, 사회, 기술의 진보 보장</li> </ul>
평화 (Pe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포와 폭력이 없는 평화적이고 정의로우며 포용적인 사회 촉진</li> <li>·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개발은 없으며, 지속가능한 개발이 없는 평화 성립도 불가능</li> </ul>
파트너십 (Partnersh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된 글로벌 연대 정신에 기반하고, 취약계층 및 빈곤계층의 수요에 초점을 둔, 모든 국가, 모든 이해관계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활성화된(revitalized)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 이행 수단 마련</li> </ul>

출처 : 저자작성 / 참고자료 : UN, 2015

### 2.2. 선언문(Declaration)

#### (1) 개관

2030 지속가능한 개발의제의 선언문은 MDGs를 기반으로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MDGs를 통해 달성되지 못한 목표들을 지속적으로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2030 개발의제 선언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경제·사회·환경의 3대 측면을 균형 잡히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달성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2030 개발의제는 선언문에서 극빈곤층과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leave no one behind) 가장 소외된 계층에도 적용될 수 있는(reach the furthest behind first) SDGs 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30 개발의제 선언문은 SDGs 목표와 세부목표는 극빈곤층과 취약계층 및 다양한 대중, 시민사회와 같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과정을 토대로 한 지난 2년간의 다양한 노력과 UN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수립을 위한 열린작업반(Open Working Group)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지난 2년간 이루어진 SDGs 목표와 세부목표 수립과정은 본 이슈페이퍼의 제3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4) 본 장은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New York, United Nations.'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 (2) 비전(Our Vision)

2030 개발의제는 MDGs의 인간·사회개발 중심의 접근을 포함하고 경제개발과 환경이슈, 평화와 안보의 과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범위를 다루면서, SDGs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라는 많은 글로벌 목표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구하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다는 면에서 ‘매우 야심찬(supremely ambitious)’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원칙 및 공약(Our Shared Principles and Commitments)

2030 개발의제는 국제법 뿐 아니라 UN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30 개발의제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국제인권조약(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 그리고 2005년 세계정상회의 결과문서(2005 World Summit Outcome)에 기반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2030 개발의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Rio Declarat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 원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지속가능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회의의 결과들이 2030 개발의제 및 SDGs 내용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 (4) 현재의 상황(Our World Today)

국제사회는 15년 전 수립된 MDGs는 개도국 개발에 있어 많은 성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아프리카 지역이나 소규모 도서 지역에 위치한 국가 및 최빈개도국과 내륙개도국과 같은 개도국들은 그 발전 정도가 저조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모성 보건과 신생아 및 아동보건에 있어 아직도 MDGs는 달성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2030 개발의제는 SDGs가 MDGs의 미달성 분야를 시작으로 MDGs가 다루지 못하였던 경제·환경·평화와 안보의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5) 미래의 과제(The New Agenda)

2030 개발의제는 SDGs의 이행과 목표 달성은 국제법을 따라야 하는 모든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는 것을 상기하며, 동시에 SDGs를 이행하는 국가들의 국내정책도 국제규범의 범주 안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취약국과 같이 여타 개도국과는 처한 상황이 특별한 국가들의 경우 SDGs 이행에 있어 미래의 과제는 각 상황에 대해 다르게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또한 중소득국의 경우도 여전히 많은 개발과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2030 개발의제는 SDGs의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는 앞에서 언급된 5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 (6)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MDGs의 한계 중 하나는 목표 수립 과정에서 이행수단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SDGs 수립 과정에서는 2030 개발의제를 통해 미래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이행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행수단(means of implementation, MOI)’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2030 개발의제는 SDGs의 이행은 특히 ‘활성화된(revitalized) 글로벌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연대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서두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기업, 시민사회, UN 기관들을 비롯하여 가능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SDGs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2030 개발의제는 특히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렸던 제3차 개발재원총회<sup>5)</sup>의 결과문서인 아디스아바바 행동과제(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를 이행하는 것이 SDGs 달성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2030 개발의제는 개발에 필요한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의 촉매제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공여국의 GNI 대비 0.7% ODA 목표를 다시 한 번 상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30 개발의제는 공여국이 국가예산 확정과정에서 GNI 대비 0.7%를 ODA로 제공하여 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국회 또는 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 (7) 후속조치(Follow-up and Review)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책무성(accountability)’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 2030 개발의제와 AAAA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2030 개발의제는 UN 총회와 UN 경제사회이사회(ECOSOC)<sup>6)</sup>가 주관하는 고위급 정치포럼(High Level Political Forum)이 글로벌 차원의 후속조치에 대한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5)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소진 (2015). 제3차 개발재원총회 논의 결과와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개발협력 2015(3): 3-18.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30 개발의제는 변화하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을 반영한 5대 핵심요소와 최근 대두된 글로벌 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법 및 국제규범을 바탕으로 현재 글로벌 목표 이행의 현황과 미래 과제를 분석하고, 수립된 글로벌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2030 개발 의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총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SDGs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이슈페이퍼는 다음과 같이 Post-2015 개발목표인 SDGs에 대해 알아보았다.

### 3.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SDGs의 수립은 2012년부터 UN을 중심으로 공식적인 준비과정이 시작되었다. SDGs 개발은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동시에 MDGs 달성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하여 총 세 단계로 구성되어 진행되다가 2013년부터 UN 열린 작업반(Open Working Group)의 SDGs 논의와 연계하여 결과적으로 총 네 단계의 절차에 따라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1. 포괄적 개발 패러다임 반영

우선 UN은 2012년 시스템 작업반(UN System Task Team)을 구성하여 MDGs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이행 경험을 바탕으로 교훈을 도출하여 Post-2015 개발목표 수립과정에 반영하였다. 본 이슈페이퍼의 서두에 소개된 것과 같이 MDGs는 기존의 경제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을 탈피하여 사회·인간개발의 중요성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MDGs의 주요 목표들이 사회인간개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오히려 경제개발을 등한시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MDGs 이후의 개발목표는 경제와 사회개발을 동등하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나아가 MDGs는 1990년대 시대적 배경을 반영하다 보니 최근 중요해진 기후변화 등의 환경지속성 이슈와 평화와 안보와 같은 글로벌 당면과제에 대한 고려가 비교적 미흡하였다. 즉 새로운 개발목표는 1990년대 이후 변화된 국제환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따라서 경제 및 사회개발 뿐 아니라 환경지속성 및 평화와 안보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임소진, 2012).

UN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2012년에 ‘개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사회·경제·환경·평화와 안보를 4대 핵심축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앞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2015년에 확정된 2030 개발의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 2012년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출처 : 임소진, 2013b

### 3.2.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용

다음으로 UN은 개도국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였다는 MDGs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UNDP를 중심으로 한 UN 국가팀(UN Country Team)을 구성하였다. UN 국가팀은 약 80여개 개도국의 의견을 반영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였다. 이와 함께, UN은 공식 온라인 웹사이트를 운영하여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일반 시민 백만명의 의견(a million voices)을 수렴하는 과정을 추진하였다. 이 웹사이트는 총 11개 분야를 구분하여 다양한 자료와 의견을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여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3.3. 개도국·공여국 간 보편성과 차별성 확보

MDGs 이행에 대한 세 번째 교훈은 MDGs 목표 이행이 마치 개도국에게만 해당되는 과제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MDGs 이행 성과측정이 개도국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져 글로벌 목표는 개도국만이 이행하는 과제가 되어버린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SDGs 이행은 개도국 뿐 아니라 공여국의 과제도 함께 포함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는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공공재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교훈은 SDGs 개발을 위해 2013년에 구성되었던 UN 고위급패널(High Level Panel)<sup>7)</sup>이 제시한 예비적 목표안(12개 목표와 54개 세부목표)에 적용되어 개도국 뿐 아니라 공여국이 함께 이행해야 할 목표들이 제시되었다. 고위급패널은 이 뿐 아니라 MDGs의 또 다른 한계인 형평성의 문제도 고려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개도국이 동등한 여건에서 같은 역량을 가지고 목표달성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별 상황과 역량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국가별 달성이 가능한 그러나 너무 보수적이지는 않은 목표치를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4.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수립

한편, Post-2015 개발목표 수립을 위한 UN의 세 단계 공식 준비절차와는 별도로, 2012년에 열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제3차 UN 세계 환경 정상회의인 Rio+20 회의의 후속대책으로 UN 열린작업반(Open Working Group)이 구성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제1차 UN 세계 환경 정상회의가 열린 후, 10년 뒤인 2002년 두 번째 환경회의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렸다. 이후 세 번째 환경회의가 다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게 되면서 2012년 UN 세계 환경 정상회의는 Rio+20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환경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에 대한 예비초안(zero draft)을 제시하였다. UN은 국제개발협력 역사상 최초로 개도국 정부가 직접 글로벌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 이 초안을 Rio+20 회의 이후에 더 발전시키기 위해 'UN 열린작업반'을 구성하게 되었다. 2013년 3월 열린작업반의 SDGs 개발이 시작되던 당시 국제사회에서는 Rio+20에서 제시되었던 SDGs는 국제환경회의와 연계된 환경 중심의 SDGs로 Post-2015 개발목표와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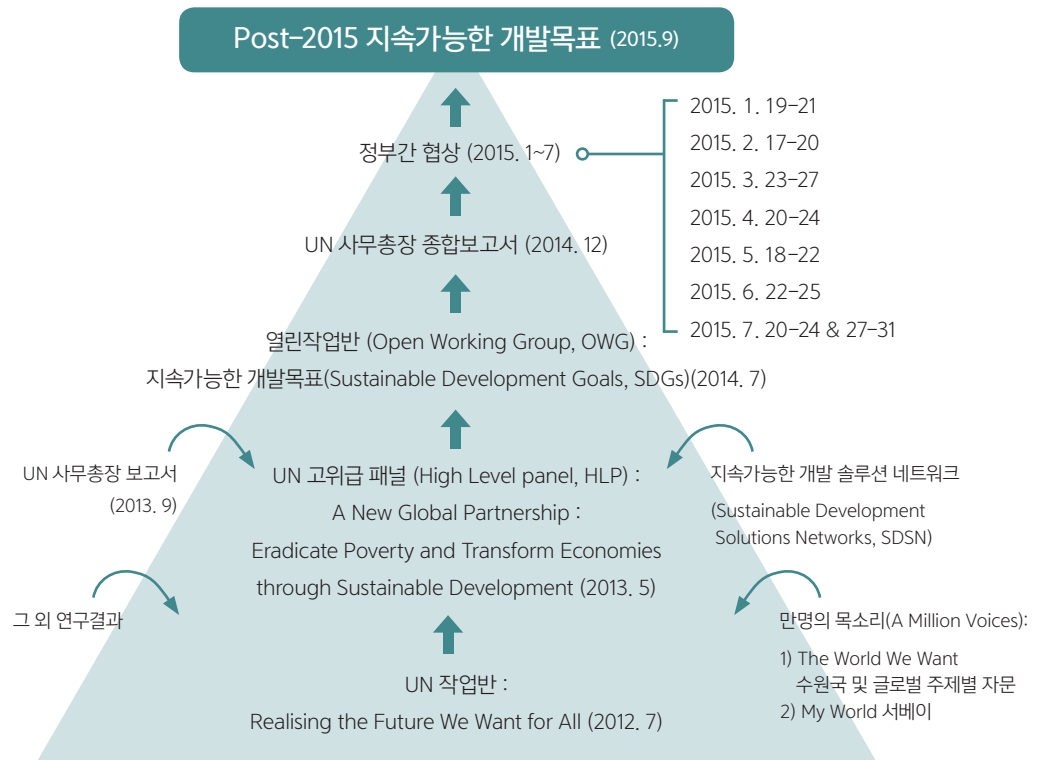
그러나 총 13회에 걸친 열린작업반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회의 안건 및 논의내용이 앞에서 언급했던 UN 고위급패널 논의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게 되면서 국제사회는 암묵적으로 열린작업반의 SDGs 논의과정을 Post-2015 개발목표 수립과정에 통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열린작업반의 SDGs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2014년 12월 UN 사무총장 보고서를 통해 열린작업반 최종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UN은 공식적으로 Post-2015 개발목표를 SDGs라 명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3년 초반까지 Post-2015 개발목표와 Rio+20 SDGs는 서로 다른 과정으로 인식되다가 2014년부터 Rio+20 SDGs가 Post-2015 개발목표 수립과정의 최종 단계로 인식되면서 Post-2015 SDGs 개발과정은 크게 앞의 세 단계에 열린작업반 논의과정을 더하여 네 단계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발된 SDGs는 2015년 9월 UN 총회의 개발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2016년부터 그 이행을 시작,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SDGs 수립과정은 <그림 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SDGs의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는 첨부와 같다.

7) UN 고위급패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임소진 (2013).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10호. 성민, 한국 국제협력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림 2>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수립과정



출처 : 임소진, 2015a

#### 4. 국제개발협력의 향후과제

이렇게 수립된 SDGs는 MDGs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UN은 국가팀과 웹사이트를 통해 SDGs가 개도국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진정한 글로벌 공동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고위급패널의 예시적 목표안 수립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국가상황과 환경, 역량 등을 고려한 개도국별로 차별된 목표치 수립을 제안하고, 최근 국제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포함한 공여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개발목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SDGs는 국제사회의 당면과제를 포용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에 실패하였다. 지난 15년간 MDGs의 21개 세부 목표는 절반도 달성되지 못하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SDGs의 169개 세부목표를 향후 15년간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또한 MDGs의 8개 목표는 일반 대중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범위였으나, SDGs의 17개 목표를 쉽게 기억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변화이론(theory of change)에 따르면 다수의 목표보다는 소수의 특정 목표가 주어졌을 때 행동변화가 가능하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MDGs의 8개 목표는 행동변화를 위한 적정수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MDGs조차도 15년 내 달성하지 못하였으니, 17개의 목표로 구성된 SDGs를 또 다른 15년 내에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Hickel, 2015; Norton and Stuart, 2014).

이는 영국과 일본과 같은 일부 선진공여국이 17개 목표수에 대해 크게 반대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UN을 포함한 일부에서는 SDGs에 포함된 많은 목표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친 결과이며, 특히 개도국이 최초 제안했던 Rio+20 예비초안에 포함된 목표들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MDGs 수립 당시에는 고려하지 못하였던 자원마련과 이행에 대한 논의가 SDGs 수립과정에서는 함께 고려되어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있었으나, 과연 S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원을 현실적으로 충당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이는 SDGs 이행의 현실성 여부와도 관련이 있는데, 2030 개발시대에는 공여국에게 더 많은 부담이 주어진 것이 사실이다. 공여국의 경우 개도국이 SDGs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ODA 지원 뿐 아니라 공여국에 해당하는 목표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외 적으로 더 많은 노력과 자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계은행은 MDGs 달성에 필요했던 자원규모가 수십억 달러인데 비해 SDGs에 필요한 자원은 수조달러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World Bank, 2015). 따라서 SDGs 이행에 필요한 자원에 대한 논의를 하였던 제3차 아디스아바바 개발자원총회에서는 ODA를 포함한 공적자원 뿐 아니라 민간기업 및 자선단체 등 민간자원의 개발에 대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SDGs 이행을 위한 민간의 참여가 어느 정도에 달할지는 미지수이다. SDGs 수립과정에서 MDGs 수립때 보다는 더 많은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하고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나, 민간기업 등이 SDGs에 대해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실제로 국내외 다양한 SDGs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수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SDGs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마련이 또 하나의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현재 25명으로 이루어진 UN 전문가위원회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DG Indicators, IAEG-SDGs)가 304개 지표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 중 축소된 형태의 지표안을 2016년 3월에 열리는 제47차 UN 통계위원회(UN Statistical Commission)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제출되는 지표안은 향후 통계위원회의 승인과정을 거쳐 2016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개최되는 UN ECOSOC의 정부간 협상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는 SDGs 이행성과 모니터링 지표 뿐 아니라, 모니터링 프레임 워크와 데이터 보고 메커니즘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전문가위원회 및 통계위원회가 개도국의 통계역량 및 공여국의 각 지표별 보고 가능성 여부를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모든 국가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후 목표 이행 성과측정 과정에서 일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뿐 아니라 일부 정부에서는 UN 통계위원회 회의를 통해 SDGs 지표 개발 과정에서 각 세부목표에 대한 기술적 재해석 또는 조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각 지표에 해당하는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SDGs 성과측정 지표 개발과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마련과 함께 국제사회의 향후 중요한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 첨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 목표 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1.1 현재 하루 \$1.25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측정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곳에서 극빈(極貧)을 2030년까지 근절
- 1.2 국가별 정의에 따라 모든 측면에서 빈곤 속에 사는 모든 연령층의 남녀 및 아동의 비율을 2030년까지 최소 절반으로 감축
- 1.3 사회안전망을 포함하여 모두를 위하여 국가별로 적합한 사회적 보호체제 및 조치를 이행하고,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 달성
- 1.4 2030년까지 모든 남성과 여성, 특히 빈곤층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기본공공서비스,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유산(遺産), 천연자원, 적정 신기술 및 소액금융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회복력을 구축하고, 기후 관련 극심한 사태 및 기타 경제·사회·환경적 충격과 재난에 대한 노출과 취약성을 감축
  - 1.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게 모든 측면에서 빈곤을 종식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하고 예측 가능한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협력 증진 등을 통하여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자원의 상당한 동원을 보장
  - 1.b 빈곤 퇴치 행동에 대한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빈곤층 친화적이고 성(性) 인지적인 개발전략에 기반하여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한 정책 체계를 창출

####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및 개선된 영양 달성, 그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촉진

- 2.1 2030년까지 기아를 종식시키고, 모든 사람, 특히 빈곤층 및 영·유아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연중 안전하고 영양가 있으며 충분한 식량에 접근하도록 보장
- 2.2 2025년까지 5세 미만 아동의 발육 부진 및 체력 저하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영양 결핍을 종식시키고 청소년기 소녀, 임산부, 수유여성 및 노년층의 영양상 필요에 대응
- 2.3 2030년까지 토지 및 기타 생산 자원과 투입요소, 지식, 금융서비스, 시장 및 부가가치 창출과 비농업부문 고용 기회에 대한 안전하고 평등한 접근 등을 통하여 소규모 식량생산자, 특히 여성, 토착민, 가족농, 목축민 및 어민의 농업생산성과 소득을 두 배 증대
- 2.4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체제를 확보하는 한편, 생산성과 생산량을 증대하고, 생태계 유지에 도움이 되며, 기후변화, 극심한 기상현상, 가뭄, 홍수 및 기타 재난에 대한 적응력을 강화시키고, 점진적으로 토지와 토양의 질을 개선시키는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 이행
- 2.5 2020년까지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수준에서 건전하게 관리되고 다변화된 종자 및 식물 은행 등을 통하여 종자, 재배식물, 가축과 사육동물 및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배분에 대한 접근을 진흥
  - 2.a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서 농업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사회기반시설, 농업 연구와 지도사업, 기술개발과 식물 및 가축 유전자은행에 대한 투자를 증대
  - 2.b 도하개발라운드의 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농업수출보조금 및 동등한 효과를 가진 모든 수출조치의 병행 제거 등을 통하여 세계 농산물시장 내 무역 제한 및 왜곡을 교정하고 예방
  - 2.c 식료품시장과 동 시장 파생상품의 적절한 기능을 확보하고, 극심한 식량가격 변동성을 제한하기 위하여 식량비축분 등에 관한 시장 정보에 대한 적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

#### 목표 3.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과 복리 증진

- 3.1 2030년까지 전 세계적인 산모사망 비율을 100,000건의 생존 출산 당 70건 미만으로 감축
- 3.2 2030년까지 신생아 및 5세 미만 아동의 예방 가능한 사망을 종식시키고, 모든 국가는 신생아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 당 적어도 12건, 5세 미만 사망을 1,000건의 생존출산 당 적어도 25건으로 감축하는 것으로 지향
- 3.3 2030년까지 전염병인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및 등한시되는 열대성 질병을 종식시키고 간염, 수인성 질병 및 기타 전염성 질병을 방지
- 3.4 2030년까지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비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조기 사망을 3분의 1 감축하고 정신 건강 및 복리 증진
- 3.5 마약 남용과 알코올의 해로운 이용을 포함한 약물 남용의 예방과 치료 강화
- 3.6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 세계적인 사망과 상해 건수 반감(半減)
- 3.7 2030년까지 가족계획, 정보 및 교육을 위한 것을 포함한 성 및 생식 보건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과 생식보건의 국가 전략 및 프로그램에의 통합을 보장
- 3.8 모두를 위한 재무 위험 보호, 양질의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질의 저렴한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

- 3.9 2030년까지 유해 화학물질과 대기·물·토양 공해 및 오염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건수를 상당히 감축
- 3.a 적절한 경우 모든 국가에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강화
- 3.b 주로 개도국에 영향을 끼치는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을 위한 백신과 의약품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유연성에 관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상의 조항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는 개도국의 권리를 확인하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에 따라 저렴한 필수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며, 특히 모두를 위한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
- 3.c 보건재원 및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개도국에서의 보건인력의 고용, 개발, 훈련 및 보수를 상당히 증대
- 3.d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의 국가적·세계적 보건 위험에 대한 조기경보, 위험 감축 및 관리 역량을 강화

#### 목표 4.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4.1 2030년까지 모든 소녀와 소년이 적절하고 효과적인 학습 결과로 귀결되는 무상의 공평한 양질의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이수하도록 보장
- 4.2 2030년까지 초등 교육을 받을 준비가 되도록 모든 소녀와 소년이 양질의 조기아동 개발, 보육 및 취학 전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
- 4.3 2030년까지 대학교를 포함한 저렴한 양질의 기술·직업·고등교육에 대한 모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
- 4.4 2030년까지 고용, 양질의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한, 기능적·직업적 기량을 포함한 적절한 기량을 보유한 청년과 성인의 수를 상당히 증대
- 4.5 2030년까지 교육에 있어서의 성별 격차를 근절하고, 장애인, 토착민 및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에 대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훈련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
- 4.6 2030년까지 모든 청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읽고 쓰는 능력과 산술 능력을 획득할 것을 보장
- 4.7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지속가능한 생활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의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적 다양성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공감을 위한 교육 등을 통하여 모든 학습자가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획득하도록 보장
- 4.a 아동·장애·성(性) 인지적인 교육시설을 구축하고 개선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고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
- 4.b 선진국 및 기타 개도국에서의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교육에 등록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소도서개도국 및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세계적으로 상당히 증대
- 4.c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과 소도서개도국에서의 교사연수를 위한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자격 있는 교사의 공급을 상당히 증대

#### 목표 5. 양성평등 달성과 모든 여성 및 소녀의 권익 신장

- 5.1 모든 곳에서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종식
- 5.2 인신매매, 성적 착취 및 기타 형태의 착취를 포함하여, 모든 여성과 소녀에 대한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근절
- 5.3 아동 결혼, 조혼 및 강제 결혼과 여성 할례와 같은 모든 유해한 관습을 근절
- 5.4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적 보호정책을 제공하고 국가별로 적절하게 가구와 가족 내에서의 책임 분담을 증진함으로써, 무상 돌봄과 가사노동에 대해 인지하고 가치있게 인식
- 5.5 정치적·경제적·공적 삶의 모든 의사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리더십을 위한 평등한 기회를 보장
- 5.6 인구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의 행동계획(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베이징 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 및 이에 대한 검토 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 및 생식 보건과 생식권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5.a 국내법에 따라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평등한 권리 및 토지와 기타 형태의 자산 소유와 통제, 금융서비스, 유산(遺産) 및 천연자원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
- 5.b 여성 권익 신장 증진을 위하여 선도적 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을 강화
- 5.c 모든 수준에서 양성평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건전한 정책과 집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

#### 목표 6.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6.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 달성
- 6.2 여성과 소녀 및 취약계층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공평한 공중위생 및 개인 위생에 대한 접근을 달성하고 노상배변을 종식

- 6.3 2030년까지 오염 감축, 유해 화학물 및 물질의 투기 근절과 방출 최소화,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半減) 및 전 세계적인 재활용과 안전한 재사용의 상당한 증진을 통하여 수질 개선
- 6.4 2030년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물사용 효율성을 상당히 증대하고,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담수의 지속가능한 취수와 공급을 보장하며, 물 부족으로 고통 받는 사람의 수를 상당히 감축
- 6.5 2030년까지 적절한 경우 초국경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수준에서 통합된 수자원 관리를 이행
-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강, 대수층, 및 호수를 포함한 물 관련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
- 6.a 2030년까지 집수, 담수화, 물 효율성, 폐수 처리,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을 포함한 물 및 위생 관련 활동과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 및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을 확대
- 6.b 물 및 위생관리 개선에 있어 지역공동체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

#### 목표 7. 모두를 위한 지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 에너지 접근성 보장

-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보장
- 7.2 2030년까지 전 세계 총 에너지원별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상당히 증대
- 7.3 203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효율성 개선율을 두 배 증대
- 7.a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및 진보되고 보다 청정한 화석연료 기술을 포함한 청정에너지 연구와 기술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기반시설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증진
- 7.b 203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서 각국의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를 위한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확대하고 기술을 개선

#### 목표 8.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양질의 일자리 촉진

- 8.1 국가별 상황에 따라 1인당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특히 최빈 개도국에서는 최소 연 7%의 국내총생산 성장을 지속
- 8.2 고부가가치 부문 및 노동집약적 부문에 초점을 두는 등 다변화, 기술 개선 및 혁신을 통하여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달성
- 8.3 생산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 창의성과 혁신을 지원하는 개발 지향적 정책을 진흥하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등을 통하여 미소(微小)기업 및 중소기업의 공식화와 성장을 장려
- 8.4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에 관한 10개년 프로그램 체계에 따라, 선진국이 주도하여, 소비와 생산에 있어서의 전 세계적인 자원 효율성을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환경 악화로부터 분리시키도록 노력
-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위한 고용과 일자리를 포함,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및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달성
- 8.6 2020년까지 고용, 교육 또는 훈련 상태가 아닌 청년비율을 상당히 감축
- 8.7 강제노동을 퇴치하고, 현대적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를 종식시키며, 소년병 징집 및 이용을 포함한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의 금지 및 근절을 확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을 종식
- 8.8 이주근로자, 특히 여성이주자 및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노동구너를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증진
- 8.9 2030년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문화와 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관광을 진흥하는 정책을 고안하고 이행
- 8.10 모두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고 확대하기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의 역량을 강화
- 8.a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역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강화된 통합체계(Enhanced Integrated Framework for Trade-Related Technical Assistance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등을 통하여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을 위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지원 증대
- 8.b 2020년까지 청년 고용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전략을 개발하여 운용되도록하고, 국제노동기구의 세계일자리협약(Global Jobs Pact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을 이행

#### 목표 9. 회복가능한 인프라 구축,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촉진, 그리고 혁신 장려

- 9.1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공평한 접근에 초점을 두고, 경제 개발과 인간의 복리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적·초국경적 사회기반 시설을 포함한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개발
- 9.2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증진하고, 2030년까지 국가별 상황에 따라 고용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율을 상당히 증대하며, 최빈개도국에서는 동 비율을 두 배 증대
- 9.3 특히 개도국에서 소규모 산업체 및 기타 기업의 저렴한 신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이들의 가치사슬 및 시장으로의 통합을 증진

- 9.4 2030년까지 자원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청정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 및 산업 과정을 더 많이 채택하며, 모든 국가가 각국의 능력에 따라 행동을 취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하여 지속가능성 부여
- 9.5 과학적 조사를 강화하고, 2030년까지 혁신을 장려하고 1백만명 당 연구개발 종사자 수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 지출의 상당한 증대 등을 통하여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산업 부문의 기술역량을 개선
- 9.a 아프리카 국가, 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 및 소도서개도국에 대한 금융·기술·기술적 지원 강화를 통하여 개도국에서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촉진
- 9.b 산업 다변화와 상품에 대한 가치 부가 등에 도움이 되는 정책 환경의 보장 등을 통하여 개도국에서의 국내 기술개발, 연구 및 혁신을 지원
- 9.c 2020년까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을 상당히 증대하고 최빈개도국에서 인터넷에 대한 보편적이고 저렴한 접근을 제공 하기 위하여 노력

#### 목표 10. 국가내 및 국가간 불평등 감소

- 10.1 2030년까지 하위 40% 인구의 소득 성장을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달성하고 유지
- 10.2 2030년까지 연령, 성별, 장애, 인종, 민족, 출신, 종교 또는 경제적 또는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사회·경제·정치적 포용을 증진
- 10.3 차별적 법, 정책 및 관행의 근절 및 이와 관련한 적절한 입법, 정책 및 행동의 진흥 등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결과의 불평등을 완화
- 10.4 특히 재정·임금·사회보호 정책 등의 정책을 채택하고 점진적으로 보다 많은 평등을 달성
- 10.5 글로벌 금융 시장 및 기관에 대한 규제와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이와 같은 규제의 이행을 강화
- 10.6 더욱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책임 있고 합법적인 기관이 되도록, 국제경제기구 및 국제금융기구에서의 의사결정에 있어 개도국의 대표성과 발언권 강화를 보장
- 10.7 계획되고 잘 관리된 이주정책의 이행 등을 통하여 질서 있고 안전하며 정기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의 이주와 이동성을 촉진
- 10.a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따라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차등대우원칙 이행
- 10.b 국가적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수요가 가장 큰 국가, 특히 최빈개도국, 아프리카 국가, 소도서개도국 및 내륙개도국에 대한 해외 직접투자를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와 자금 흐름을 장려
- 10.c 2030년까지 이주자 송금 비용을 3% 미만으로 줄이고, 송금 비용이 5%를 초과하는 송금 경로를 철폐

#### 목표 11. 포괄적이고, 안전하며, 회복가능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 11.1 2030년까지 모두를 위한 적절하고 안전하며 저렴한 주택 및 기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빈민가를 개선
- 11.2 2030년까지 취약계층, 여성, 아동, 장애인 및 노년층의 필요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특히 대중교통 확대를 통하여 도로 안전을 개선하여,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제에 대한 접근을 제공
- 11.3 2030년까지 모든 국가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화 및 참여적이고 통합적이며 지속가능한 인간 정주 계획 및 관리 역량을 강화
- 11.4 세계 문화·자연 유산 보호를 위한 노력 강화
- 11.5 2030년까지 빈곤층과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사망자 수 및 피해자 수를 상당히 감축하고, 물 관련 재난을 포함하여 재난에 의해 발생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상당히 감축
- 11.6 2030년까지 대기의 질과 도시 및 기타 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한 주의 등을 통하여 도시의 부정적인 1인당 환경 영향을 감축
- 11.7 2030년까지 특히 여성과 아동, 노년층 및 장애인을 위한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환경친화적인 공공장소에 대한 보편적 접근 제공
- 11.a 국가적·지역적 개발계획을 강화함으로써, 도시, 도시근교 및 시골 지역 간 긍정적인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연결을 지원
- 11.b 2020년까지 포용, 자원 효율성,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재난 회복력을 위한 통합된 정책과 계획을 채택하고 이행하는 도시와 거주지의 수를 상당히 증대하고, 2015-2030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센다이 체계(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2015-2030)에 따라 모든 수준에서 전체적인 재난 위험 관리를 개발하고 이행
- 11.c 금융 및 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의 자재를 사용하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건물을 짓는 데 있어 최빈개도국을 지원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보장

- 12.1 개도국의 개발과 능력을 고려하여, 모든 국가가 행동을 취하고 선진국이 주도하면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에 관한 10 개년 프로그램 체계(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 on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를 이행
-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및 효율적 사용 달성
- 12.3 2030년까지 소매 및 소비자 수준의 전 세계적인 1인당 식량 낭비를 반감하고, 수확 후 손실을 포함하여 생산 및 공급 과정의 식량 손실을 감축
- 12.4 2030년까지 합의된 국제적 체계에 따라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에 대해 그 전 생애주기에 걸쳐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달성 하고,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동 화학물질과 모든 폐기물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 물 및 토양에 대한 배출을 상당히 감축
-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및 재사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상당히 감축
- 12.6 기업, 특히 대기업 및 다국적기업으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관행을 채택하고 보고 주기에 지속가능성 정보를 통합시키도록 장려
- 12.7 국가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공조달관행을 진흥
- 12.8 2030년까지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개발 및 생활방식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인식을 갖도록 보장
- 12.a 개도국이 보다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학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
- 12.b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화 및 상품을 진흥하는 지속가능 관광에 미치는 지속가능개발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수단을 개발하고 이행
- 12.c 개도국의 특정한 필요 및 상황을 온전히 고려하고, 빈곤층 및 영향을 받게 되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개도국 개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세제를 개혁하고 해로운 보조금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 상황에 따라 시장 왜곡을 제거함으로써 낭비적 소비를 조정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

## 목표 13.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한 긴급 대응

-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위험과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및 적응력 강화
- 13.2 기후변화 조치를 국가 정책, 전략 및 계획에 통합
- 13.3 기후변화 완화, 적응, 영향 감축 및 조기 경보에 관한 교육, 인식 제고 및 인적·제도적 역량 개선
- 13.a 의미 있는 완화 조치와 이행에 관한 투명성의 맥락에서 개도국의 필요에 대응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기금을 확보함으로써 녹색기후기금이 온전히 운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모든 원천으로부터 매년 1,000억불을 공동으로 동원 하겠다는 목표에 대한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 선진국 당사국의 공약을 이행
- 13.b 여성, 청년 및 지역공동체와 소외집단에 초점을 두고 최빈개도국과 소도서개도국에서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을 촉진

## 목표 14.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 14.1 2025년까지 해양쓰레기 및 영양염류오염을 포함하여 특히 육지에 기반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해양오염을 예방 하고 상당히 감축
- 14.2 2020년까지 해양 및 연안 생태계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보호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대양을 만들기 위하여 동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한 행동을 실시
- 14.3 모든 수준에서 과학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양 산성화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이에 대응
- 14.4 최소한 생물학적 특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최대한의 지속가능한 산출량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능한 한 최단 기간에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효과적으로 어획을 규제하고, 남획과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과 파괴적인 어업관행을 종식시키며, 과학에 기반한 관리계획을 이행
- 14.5 2020년까지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가용한 최상의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해안 및 해양 지역의 최소 10%를 보존
- 14.6 개도국과 최빈개도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차등대우가 세계무역기구 수산보조금 협상의 불가결한 일부가 되어야 함을 인지하며,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및 남획을 조장하는 일정 형태의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불법·미신고·비규제 어업을 조장하는 보조금을 근절하며, 이와 같은 신규 보조금 도입을 자제
- 14.7 2030년까지 수산, 양식 및 관광의 지속가능한 관리 등을 통하여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도서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



- 14.a 대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개도국, 특히 소도서개도국 및 최빈개도국 개발에 대한 해양 생물다양성의 기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 간 해양학 위원회의 해양기술 이전에 관한 기준과 지침(Intergovernmental Oceanographic Commission Criteria and Guidelines on the Transfer of Marine Technology)을 고려하여, 과학적 지식을 증대하고 연구역량을 개발하며, 해양기술을 이전
- 14.b 소규모 영세어업인에게 해양 자원 및 시장에 대한 접근 제공
- 14.c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의 158항에서 환기된 대로,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제공하는 국제연합 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반영된 바와 같은 국제법을 이행함으로써 대양과 그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강화

#### 목표 15. 육상 생태계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 중지 및 복원, 그리고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 15.1 2020년까지 국제협약 하의 의무에 따라 육지와 내륙의 담수 생태계 및 동 생태계가 제공하는 편익, 특히 산림, 습지, 산 및 건조지의 보존,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
- 15.2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산림에 대한 지속가능한 관리의 이행을 진흥하고, 산림 파괴를 중지시키며, 황폐화된 산림을 복원하고, 조림과 재조림을 상당히 증대
- 15.3 2020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사막화, 가뭄 및 홍수의 영향을 받은 토지를 포함한 황폐화된 토지와 토양을 복구하며, 토지 황폐화 중립적인 세계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에 필수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산지 생태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포함한 동 생태계 보존을 보장
- 15.5 자연서식지의 황폐화를 줄이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행동을 취하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중지시키며,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고 그 멸종을 예방
- 15.6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진흥하고 유전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진흥
-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과 밀매를 종식시키기 위한 시급한 행동을 취하고, 불법 야생동물 제품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응
- 15.8 2020년까지 외래 침입종의 유입과 이들이 육지 및 수(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고, 우점종(優占種)을 통제하거나 퇴치
- 15.9 2020년까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국가적·지역적 계획, 개발 과정, 빈곤 감축 전략 및 회계에 통합
- 15.a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동원하고 상당히 증대
- 15.b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 모든 원천으로부터 상당한 자원을 동원하고, 보존 및 재조림 등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
- 15.c 지속가능한 생계의 기회를 추구하는 지역공동체의 역량 증대 등을 통하여 보호종의 밀렵과 밀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 목표 16.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 대한 접근성 제공, 그리고 모든 차원에서의 효과적이고, 책무성있는 포괄적 제도 구축

-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히 감축
-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 16.3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유출입을 상당히 감축하고, 도난 자산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방지
-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히 감축
-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
- 16.7 모든 수준에서 공명(共鳴)하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 16.8 개도국의 국제 거버넌스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 16.9 2030년까지 출생신고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 부여
- 16.10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근본적 자유를 보호
- 16.a 모든 수준에서, 특히 개도국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테러리즘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도록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관련 국내 기관을 강화
- 16.b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 목표 17. 이행수단의 강화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17. 1 세금 및 기타 수입 징수를 위한 국내 역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국제적 지원 등을 통하여 국내 자원 동원 강화
17. 2 총국민소득의 0.7%를 공적개발원조(ODA/GNI) 개도국에, ODA/GNI의 0.15~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많은 선진국의 약속을 포함하여 선진국은 공적개발원조 약속을 완전히 이행; ODA 제공국이 ODA/GNI의 최소 0.20%를 최빈개도국에 제공하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장려
17. 3 여러 원천으로부터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자원 동원
17. 4 적절한 경우 부채 차입, 부채 경감 및 부채 재조정을 위한 정책 조율을 통하여 개도국의 장기부채지속성 달성을 지원하고, 채무 부담 감축을 위하여 고채무빈국의 외채 문제에 대응
17. 5 최빈개도국을 위한 투자 증진 체제를 채택하고 이행 기술
17. 6 과학, 기술 및 혁신에 관한 남북·남남·삼각 지역 및 국제 협력과 동 과학, 기술 및 혁신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연합 수준에서 현존 메커니즘 간 조정의 개선 및 세계적인 기술 원문화 메커니즘 등을 통하여 상호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지속 공유를 강화
17. 7 상호 합의되는 양허 및 특혜 조건 등 유리한 조건으로 개도국에 대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이전, 전파 및 확산을 증진
17. 8 2017년까지 최빈개도국을 위한 기술은행과 과학, 기술 및 혁신 역량구축 메커니즘이 완전히 운용되도록 하고, 선도적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을 강화

### 역량구축

17. 9 남북·남남·삼각 협력 등을 통하여, 모든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계획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도국에서 효과적이고 선별적인 역량구축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적 지원을 강화 무역

### 무역

17. 10 도하개발의제 협상 타결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하의 보편적이고, 규칙에 기반하며, 개방적이고, 무차별적이며, 공평한 다자 무역체제를 증진
17. 11 특히 2020년까지 전 세계 수출에서의 최빈개도국의 몫을 두 배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개도국의 수출을 상당히 증대
17. 12 최빈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 가능한 특혜원산지 규정이 투명하고 단순하며 시장접근 원문화에 기여하도록 보장하는 것 등을 통하여, 세계무역기구 결정에 일치하게 모든 최빈개도국에 대한 영구적인 무관세·무쿼터 시장접근의 적시 이행을 실현

### 시스템적 사안

#### < 정책 및 제도적 일관성 >

17. 13 정책 조율 및 정책 일관성 등을 통하여 전 세계 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17.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강화
17. 15 빈곤 퇴치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적 재량과 리더십을 존중

#### < 여러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 >

17. 16 모든 국가, 특히 개도국에서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 전문성, 기술 및 재원을 동원하고 공유하는 여러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에 의해 보완되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을 강화
17. 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자원조달전략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공공-민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장려하고 증진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임
17. 18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 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및 국가적 맥락에서 적절한 기타 특징으로 구성되는 고품질의 적시성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의 이용가능성을 상당히 높이기 위하여, 2020년까지 최빈개도국과 소도서개도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역량구축 지원을 강화
17. 19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을 보완하는,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진전 상황 측정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현존 이티셔티브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키고, 개도국의 통계 역량 구축을 지원

출처 : 외교부, 2015

#### <참고문헌>

외교부 (2015). 유엔 개발정상회의.

임소진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4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 (2013a).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10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 (2013b). 모두를 위한 품위있는 삶 :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 사무총장 보고서. 개발과 이슈 제12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 (2015a). 국제사회의 개발자원 지형의 변화와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개발협력 2015(1): 3-31.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_\_\_\_ (2015b). 제3차 개발자원총회 논의 결과와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한국의 개발협력 2015(3): 3-18.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Hickel, J. (2015). The Problem with Saving the World: The UN's New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im to Save the World without Transforming It.

Norton, A. and E. Stuart (2014). SDGs: Why 17 Goals and 169 Targets Might Not Be Such a Bad Thing. The Guardian, 26 November 2014.

UN (2015).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New York, United Nations.

World Bank (2015). From Billions to Trillions: MDB Contributions to Financing for Development.